

## 창업실패사례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창업실패사례의 원인 분석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등 창업문화 정착을 위해 창업실패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창업동기나 아이템, 창업규모, 구체적인 실패요인 등 창업에서부터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자전적 내용을 공모하면 된다. 대상분야 제한은 없다.

중기청은 제기상 1인엔 상폐와 상금 1500만원, 감투상 2인엔 상폐와 상금 500만원, 노력상 3인엔 상폐와 상금 300만원, 입선 6인에 대해 상폐와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중기청은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창업실패사례를 책자로 발간, 전국에 배포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실패사례의 공유를 통한 실패의 지식자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실패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기간 중엔 창업성공사례공모전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sun.go.kr](http://www.sun.go.kr))을 참조하면 된다.

## 소기업 경영진단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전문컨설턴트가 경영진단을 해주는 '소기업 경영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 컨설팅 비용(200만원)의 60%(12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며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은 우선 지원한다.

경영진단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중소기업청 및 사업주관기관(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 홈페이지에서 '컨설팅 사업안내' 신청서 서식 및 관련서류를 다운 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 중기청, 신벤처정책 마련

정부는 연내에 '신벤처정책'을 마련, 제2 벤처붐 조성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은 7일 "내년말로 벤처확인제도가 끝난다"며 "이 제도를 통한 창업유도정책 대신 기존 벤처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청장은 이를 위해 ▲코스다 활성화 ▲벤처생태계 조성 ▲창업규제개혁 ▲벤처창업자금 지원확대 ▲인수합병(M&A) 원활화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기청은 코스다시장의 진입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벤처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판단, 재정경제부 등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약 3조원어치 가운데 2조6천억원어치가 미공개주식이거나 상장 요건강화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투자 - 기업공개를 통한 투자회수 - 채투자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선순환구조가 깨져 있는 상태다.

중기청은 또 벤처생태계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서울의 테헤란밸리가 주도하던 벤처집중지역을 안양 등 서울 외곽도시와 지방도시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창업규제를 대폭 개혁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을 개정, 현재 환경부, 건설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65개 벤처창업 승인절차를 지방자치단체체 창구에서 '원스톱' 처리해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밖에 벤처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키로 했으며 인케(INKE:한민족 글로벌 벤처네트워크)를 벤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병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